

# 후대사랑이 어린 《소나무》책가방

공화국의 학생소년들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은 《소나무》책가방!  
오늘 아침도 집집에서는 등교길에 오르는 귀여운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소나무》책가방을 매워주며 공부를 잘하고 오라고 당부를 하였으리라.  
걸을 봐도, 안을 봐도 남의 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은 《소나무》책가방이다.  
모양 좋고 질 좋은 가방에 동심에 맞게 그려진 소년장수머령이 너구리, 금시라도 숲의 향기가 풍길듯 싶은 가방상표...  
몇 해 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 손

에는 책가방을,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을 들고 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걸어주시었다.  
아이들에게 멋진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소고 그이께서 마디마디 정을 담아 말씀하시던 그때부터 아이들의 가방생산을 위한 시간이 흘러갔다.  
기어이 제일 좋은 우리의 것을!  
아이들에게 제법으로 만든 학습장이며 가방을 비롯한



## 맛과 향기가 독특한 오일 건강음료

공화국의 오일건강음료 종합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제품들이 독특한 맛과 향기로 하여 날이 갈수록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에스키모와 요구르트, 우유, 과일단독, 영양음, 에네르지활성음료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호두에스키모, 검은참쌀에스키모, 누룽지맛에스키모를 비롯하여 매 품종에 따르는 가치



## 록색건축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거리

공화국을 찾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러명거리를 돌아보고 록색건축기술의 생동한 교과서와도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다. 러명거리는 록색건축에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게 건설대상이 생태환경을 좋게 하고 주변환경에 친숙하게 하는 원칙에서 설계되었다.  
러명거리건설을 받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모든 살림집과 봉사건물, 공공건물에 록색건축기술을 받아들여 에네르지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다.  
러명거리에는 태양열을 축

공화국의 신경철감공장에서 생산한 철감들을 써서 사람들은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아크릴계철감이라고 하면 아크릴계수지를 피막제로 리용한 철감으로서 해빙과 비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고 광택, 굳기 등의 기계적성질이 뛰어나므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얼마전 신경철감공장을 찾은 우리에게 림승호책임기사는 공장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러가지 용도의 철감들을 생산해내고있으며 아크릴계철감생산공장에서 중력을 이루는 합성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는 이 합성탑에서 아크릴산 및 아크릴산부활성공정을 진행하여 철감의 원료인 단량체를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과학자들과 노동자들은 생산기술도입과 설비제작,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몇 나라의 특제품으로 되고있는 아크릴산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남흥화학설계연구소 설계원들과 지혜를 합쳐 합성탑에서 실장부라고 할수 있는 산화반응기를 자체로 제작하는

처럼 만족해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그의 영향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있다.  
잊지 못할 그날 공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평양가방공장이 일떠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방사태, 가방풍년이 들었고, 자신께서는 별세상에 와본것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학교로 오고갈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마음이 호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좋고 맛있는 가방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고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셨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그이께서 아이들의 가방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 쓰시었으면 주체 106(2017)년의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에 찍으면서 올해 자신의 행군길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오늘도 평양가방공장의 종업원들은 공장을 돌아보시고

## 《우리의 것이 제일입니다》

◆ 신경철감공장을 찾아서 ◆

의 전자요소들로 구성된 폭발구역감시조종체계, 분산형조종체계, 비상정지보호체계를 개발도입하여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과학기술수준에서 완성시킨 지난해 대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전해들을수 있었다.  
철감생산 및 포장작업반에 들어서니 혼합기를 운전하는 혼합공들과 포장로보트에 의하여 철감을 포장하는 포장공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이곳에서 단량체를 유약중합시켜 전색제(수성, 유성)를 만든 다음 색깔과 안료들을 혼합시켜 수성철감과 유성철감을 만들어 용기에 포장하고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철감은 빛견딜성이 약한것으로 하

## 과학기술포럼에서 새로운 자료보급체계 개발도입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 보급기지, 정보보급의 거점인 과학기술포럼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자료를 보다 신속정확히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적추세에 맞으면서도 해당 과학기술보급거점들과의 정보공유를 더욱 목적지향성있게 할수 있는 자료보급체계를 새로 연구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전당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도서관부서 과학자들간의 긴밀한 연계망을 해당 자료가치의 구조와 국가망에 의한 전승규약을 표준화하였다.

##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워간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이 현대과학기술과 높은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인재들로 키워가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에서 실시되는 CDIO교육방식을 대학의 실정에 맞게 혁신하여 교육과 과학연구와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키고있는것이다.  
CDIO는 세계 품에 대한 착상(Conceive)으로부터 설계(Design), 실현(Implement), 운영(Operate)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CDIO교육방식은 구체적인 제품이나 공정, 체계의 착상과 설계, 실현, 운영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서 협력하면서 실

##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는 세계를 보면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가는 이들이 있어 원료, 자재로부터 설비와 완제품, 포장용기에 이르기까지 질 좋은 아크릴계철감들이 광범 생산되고 있는것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갖가지 철감들을 살펴보면 제법이 제일이고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넘쳐있을 사람들과 더욱 아름다워질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본사기자 리철민

## 과학기술포럼에서 새로운 자료보급체계 개발도입

과학자들은 전당에서 구축하는 모든 과학기술포럼들과 각급 과학기술보급단위들의 정보수요를 주체별, 장서별로 관리할수 있는 주체로 파일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완성하였다.  
새로운 자료보급체계가 개발도입됨으로써 종전의 자료전송방식에 비해 운영에서 신속성과 적응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자료관리에서의 통일성이 보장되고 보다 실용적이며 종합적인 전자장서관리체계를 확립할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보급체계에 의해 과학기술포럼에 집결된 최신자료들이 표준화된 전송규약과 해당 부문,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보급거점에서 요구하는 보급주기와 내

